

부산시,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료... 134억7000만원 모금

지난달 62일간의 릴레이 마무리 목표액 26.1억 초과... 최고 실적 BNK금융그룹, 화승그룹 등 영향



'희망2025나눔캠페인' 로고.

/부산시

부산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5나눔캠페인' 62일간의 릴레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부산을 가치있게'라는 표어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리에 완료됐다.

1월 31일 오전 11시 기준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124도, 모금액은 134억 7000만원으로 이는 목표액을 26억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이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이다.

모금액은 현물 모금은 포함되지 않은 실적으로 현금 총 134억 7000만원 상당이며 이에 따라 최종 나눔온도 실적은 124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BNK금융그룹 총 12억 원 기부, 1월 화승그룹 4개 계열사 나눔명문기업 동시가입 등 지역 향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져 전년 캠페인 대비 기업 기부금 7억여 원이 증가한 점이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의 주된 요인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3일에는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 100도를 조기에 달성하며 연말연시 때서운 추위와 불경기에 얼어붙은 지역 분위기를 훈훈하게 달궜다. 역대 100도 달성 일자는 ▲2022년 1월 25일 ▲2023년 1월 27일 ▲2024년 1월 15일로, 이번 달성일

은 최근 4년 중 가장 빠른 시기다.

또 이번 '희망2025나눔캠페인'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기부자들이 이어지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형준 시장은 "희망2025나눔캠페인이 성료된 것을 축하하며 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나눔 선순환의 시작"이라며 "캠페인 성공 60%는 지역연계 모금으로 시와 16개 구·군 그리고 부산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을 살피고 보듬는 시민들의 마음이야말로 부산의 저력이며 성장 동력이다. 앞으로도 사회공헌기업·단체와 적극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의지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제9회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시상식장에서 강진군 공무원들이 수상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

푸소, 韓 브랜드 명예의전당 선정

강진군의 농어촌 체류형 관광 브랜드 '푸소(FU-SO)'가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에서 공공부문(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장애인 자립·돌봄서비스 강화

예산 1800억 확보... 전년비 8.6%↑ 활동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 지원

전남도가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1800억 원을 확보, 장애인 돌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142억 원, 비율로는 8.6%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에선 5700여 활동지원사가 6500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며 사회참여를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2.9% 인상해

돌봄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는 등 장애인 자립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비지원 외에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58시간까지 전남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며 취약계층과 위기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내년 11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 감염병 환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더욱 폭넓은 돌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시, 오는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 연다

5·18기념주간에 맞춰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5월 15~17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동주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을 이어가며 인권도시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 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국가 폭력 및 인권탄압 등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발생시킴으로써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삶과 공존을 파괴한다.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평화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포럼을 통해 평가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연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5·18기념주기와 맞물려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광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유일의 국제인권포럼이다"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포항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본격화

114억 투입... 수소승용차·버스 보급

포항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114억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91대와 수소 버스 24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와 '유니버스(현대자동차)'이며, 수소차 구매 시 승용은 1대당 3250만 원, 버스는 1대당 3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90일 이상) 및 법인·기업,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며, 우선 접수순으로 보조금이 지급



포항 장흥 수소 충전소.

된다.

다만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두 달 이내에 출고 가능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수소버스 약 160대를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경북 최대 규모인 장흥 수소 충전소를 사업 개시한데 이어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영일남4산업단지에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역핵수소 기반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구축 중에 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경주시, APEC 정상회의 대비 도로 정비

보문단지 등 5개 노선 대상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단지를 포함한 주요 도로를 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정상회의장 주변 도로 환경을 개선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경감로, 보문로, 보불로, 불국로, 산업로, 서라벌대로 등 5개 노선이다. 총 사업비 247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129억 원, 시비 103억 원)이 투입된다.

정비 구간은 총연장 63.5km이며, 주요 사업은 ▲도로 포장 ▲안전시설물 및 이정표 정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등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특히 회의장 주변인 보문단지 내 도로 정비에 111억 원을 투입해 가로등 300본과 공원 등 400본을 새롭게 설치하고, 보문교삼거리 우회전 차로를 110m 확장할 계획이다.

불국사 주변 도로(보불로·불국로·영불로)와 산업로(용강의동) 구간에도 인도와 가로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라벌대로(경주IC배반네거리)와 박물관 주변 도로(원화로·양정로·분황로)에는 경관 조명과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나섰다. 오는 3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8월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경북 안동시는 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20~49세 남녀 모두(여 13만원, 남 5만원) 총 3회 확대한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경남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A등급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A는 상위 10%만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경남은 이번에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지수화한 값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울진군

'걸어서 건강속으로' 챌린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건강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걸어서 건강속으로' 챌린지를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간 운영한다.

'걸어서 건강속으로 챌린지'는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15만보 걷기(1일 최대 1만보 인정)를 달성한 주민 중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울진사랑카드 1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걷기를 생활화하고자 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